

Session 17 David Anointed King in Jerusalem (2 Sam. 5) 제 17 장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삼하 5 장)

I. ALL THE TRIBES OF ISRAEL ANOINTED DAVID AS KING (2 SAM. 5:1-5)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다 (삼하 5:1-5)

- A. The humbled, desperate elders received David after the murders of Abner and Ishbosheth (5:1-2). David's generous response to them unified the nation as he refused to yield to bitterness. He forgave them for 7 years of resistance after Saul's death (2 Sam. 2-4) as well as the previous 5-7 years in the wilderness when Saul chased him with the support of these very leaders of Israel (1 Sam. 21-31).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살해되고 난 뒤에 겸손해지고 절박해진 장로들은 다윗을 받아들였다 (5:1-2). 다윗은 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대신,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며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다. 그는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광야에서 자신을 쫓을 때의 5-7 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삼상 21-31 장), 사울이 죽은 후 7 년 동안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용서했다 (삼하 2-4 장).

¹Then all the tribes of Israel came to David at Hebron and spoke, saying, “Indeed we are your bone and your flesh.” ²Also, in time past, when Saul was king over us, you were the one who led Israel...the LORD said to you, “You shall shepherd My people Israel, and be ruler over Israel.” (2 Sam. 5:1-2)

¹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² 전에 곧 사울과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삼하 5:1-2)

1. *All the tribes of Israel:* Israel remembered God's blessing on David's leadership in the military while serving under Saul (1 Sam. 18:5), prophetic words about his call to be king (1 Sam. 16:1), Abner's desire to make him king (3:10, 21), David's honor of people who had been loyal to Saul—men of Jabesh Gilead (2:6), Abner (3:20, 32) and Ishbosheth (4:12)—and especially the way in which David spared Saul in En Gedi (24:10) and in the Wilderness of Ziph where many heard Saul proclaim that David would do great things and succeed (26:25).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은 다윗이 사울 밑에서 군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리더십을 축복하신 것과 (삼상 18:5),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과 (삼상 16:1). 아브넬이 그를 왕으로 만들기를 원했으며 (3:10, 21), 그가 사울에게 충성했던 이들을 존중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 길르앗 야베스 사람 (2:6), 아브넬 (3:20, 32), 이스보셋 (4:12)-, 특별히 다윗이 엔게디(24:10)와 십 광야에서 사울을 살려준 것과 사울이 다윗에 대해 큰 일을 행하며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26:25) 기억하고 있었다.

2. *The Lord said to you:* The elders acknowledged that they knew that the Lord had chosen him. His prophetic call to be king was spoken by Samuel (1 Sam. 13:14; 15:28; 16:1, 13), Jonathan (1 Sam. 23:17), Saul (1 Sam. 24:20; 26:25), Abigail (1 Sam. 25:30), Abner (2 Sam. 3:9-10, 17-18), David's team (1 Sam. 24:4), Israel's elders (2 Sam. 5:2), and Ethan (Ps. 89:19-20).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장로들은 주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왕으로서의 그의 예언적인 부르심은 사무엘을 통해 (삼상 13:14; 15:28; 16:1, 13), 요나단 (삼상 23:17), 사울 (삼상 24:20; 26:25), 아비가일 (삼상 25:30), 아브넬 (삼하 3:9-10, 17-18), 다윗의 사람들 (삼상 24:4), 이스라엘의 장로들 (삼하 5:2), 그리고 에단을 통해 (시 89:19-20) 예언되었고 언급되었다.

3. **Shepherd and ruler:** They saw David as the man who could unify the nation and heal the wound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Shepherds lead by caring and serving.

목자와 주권자: 그들은 다윗이 나라를 연합시키며, 남쪽과 북쪽 사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목자들은 돌보고 섬기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인도한다.

4. **We are your flesh and bones:** They appealed to David as part of their family even after they had resisted him for over seven years after Saul's death. In this appeal they were asking for his forgiveness and seeking to make peace with him saying, "We all came from Abraham."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다: 그들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7년이 넘게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왕과 한 가족임을 호소했다. 여기서 그들은 그가 용서해주기를 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말하며 그와 화평하기를 구하고 있다.

5. **In time past:** They remembered that the Lord anointed David in battle against the Philistines. There is a time when the Lord causes the value of one's past service to come to light.

전에: 그들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주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이 과거에 섬겼었던 것의 귀중함을 알려지도록 하실 때가 있다.

- B. The elders traveled to Hebron to ask David to be their king (5:3). David didn't *seek* to be king but *waited* on the elders to ask him. He did not use his superior military power to impose his authority on the tribes of the north. 1 Chronicles 11-12 provides much more information about 2 Samuel 5.

이 장로들은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다 (5:3). 다윗은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장로들이 그에게 요청하는 것을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우월한 군사력을 사용해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지 않았다. 대상 1-12 장을 보면 삼하 5 장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다.

³Therefore all the elders of Israel came to the king at Hebron, and King David made a covenant with them at Hebron before the LORD. And they anointed David king over Israel. (2 Sam. 5:3)

³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삼하 5:3)

- C. David was king for forty years (5:4-5). He ruled 7 years in Hebron and 33 years in Jerusalem.

다윗은 40년간 왕으로 지냈다 (5:4-5). 7년은 헤브론에서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⁴David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forty years. ⁵In Hebron he reigned over Judah seven years and six months, and in Jerusalem he reigned thirty-three years over all Israel and Judah. (2 Sam. 5:4-5)

⁴ 다윗이 나이가 삼십 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다스렸으되 ⁵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삼하 5:4-5)

II. DAVID CONQUERED JERUSALEM (2 SAM. 5:6-8)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다 (삼하 5:6-8)

- A. David's first recorded act as king over Israel was to establish a capital city in Jerusalem (5:6-8). David and his men marched to Jerusalem to fight the Jebusites and drive them from the city. He captured Jerusalem—which was one of the few cities in Israel that was still occupied by the enemy.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일 중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은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우는 것이었다 (5:6-8).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을 행진해서 여부스 사람들을 싸워서 이 도시로부터 몰아내기 위해 갔다. 그는 예루살렘을 빼앗았으며, 이는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적이 차지하고 있던 몇 개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였다.

⁶And the king and his men went to Jerusalem against the Jebusites...who spoke to David, saying, "You shall not come in here; but the blind and the lame will repel you," thinking, "David cannot come in here."⁷Nevertheless David took the stronghold of Zion (that is, the City of David) (2 Sam. 5:6-7)

⁶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⁷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삼하 5:6-7)

- B. **Jerusalem:** Jerusalem, the main city in salvation history, now entered David's personal story. David made Jerusalem the capital for all Israel, as he needed a neutral city to be the capital of the newly united nation. Hebron was in the territory of Judah—it would have sent a wrong message to Israelite tribes in the north to make it the capital city of unified Israel. Jerusalem was on the border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it did not have a negative history associated with Israel or Judah. Bordering Judah, Jerusalem was actually in the territory of Saul's tribe of Benjamin (Josh. 18:28)

예루살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예루살렘은 이제 다윗의 스토리 안으로 들어온다. 다윗에게는 새롭게 연합된 나라의 중립적인 수도가 필요했으며,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영토에 있었으며, 이곳을 연합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오해가 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었다. 예루살렘은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와 연관된 과거의 부정적인 역사가 없었다. 유다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던 예루살렘은 실제로는 사울의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었다 (수 18:28).

1. The Jebusites were Canaanites who still had a stronghold in Jerusalem almost 500 years after Joshua entered the Promise Land. Jerusalem continued to be occupied by these native people. The children of Judah took Jerusalem, but the Benjaminites had allowed the Jebusites to live among them; it grew fast and became a strong Jebusites city (Josh. 15:63; Judges 1:21).

여부스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으며,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지 500 년이 다 되도록 예루살렘에서 요새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원주민들은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점령하고 있었다. 유다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신들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두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내 빠르게 성장해서 강력한 여부스 족의 도시를 형성했다 (수 15:63; 삿 1:21).

2. The Lord spoke to Moses about a city where He chose to put His name (Deut. 12:5). Solomon built the temple in Jerusalem; Jesus called Jerusalem the city of the great king (Mt. 5:35).

주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두기로 정하신 도시에 대해 말씀하셨다 (신 12:5).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큰 임금(왕)의 성으로 부르셨다 (마 5:35).

⁵But you shall seek the place where the LORD your God chooses, out of all your tribes, to put His name for His dwelling place; and there you shall go. (Deut. 12:5)

⁵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신 12:5)

⁵“Since...I brought My people out of the land of Egypt, I have chosen no city...in which to build a house [the temple], that My name might be there... ⁶I have chosen Jerusalem, that My name may be there, and I have chosen David to be over My people...” (2 Chr. 6:5-6)

⁵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들만한 집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 ⁶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대하 6:5-6)

- C. ***The blind and the lame will repel you:*** They boasted that Jerusalem was so well defended that if the blind and lame were posted on the wall instead of their seasoned warriors, they could defend it. They used this language of contempt to taunt David. Jerusalem was a very difficult city to capture because there were deep valleys on three sides of it. The Jebusite archers could easily hit soldiers attacking them. In the ancient world some dropped stones or poured boiling water from high walls.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은 예루살렘의 방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성벽에 자신의 경험 많은 전사들 대신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세우더라도 막아낼 수 있다고 자부했다. 그들은 경멸하는 언어로 다윗을 조롱했다. 예루살렘은 삼면이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복해내기에 매우 어려운 도성이었다. 여부스 족의 궁수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들을 쉽게 쏠 수 있었다. 고대에는 높은 성벽에서 돌을 굴리거나 끓는 물을 붓기도 했다.

- D. ***David took the stronghold of Zion:*** A stronghold was a military fortress protected by strong walls. Zion was an eleven-acre property on the top of a hill surrounded by steep valleys on three sides. Therefore the fortress of Zion seemed inaccessible to the attack of an invading army.

다윗이 시온 산성 [한글 KJV: 요새]을 빼앗았으니: 여기서 산성, 견고한 진이란 강력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군사 요새를 말한다. 시온은 언덕 위에 위치한 11 에이커 (약 13,500 평) 정도의 영토로써, 삼면이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따라서 이 시온의 요새는 침략하는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 E. There were two hills on Zion. One hill was called Mount Moriah (where the temple was built) and one called Zion (where David's palace was built). Strictly speaking, Zion is the hill, and Jerusalem is the city around it. Zion spoke of the walled portion of the Jebusite hilltop settlement serving as David's personal residence within Jerusalem. *Zion* and *Jerusalem* are used throughout Isaiah as synonyms (Isa. 2:3; 4:3-4; 31:4-5, 9; 33:20; 40:9; 41:27; 52:1; 64:10) much like *Israel* and *Jacob*.

시온에는 두 개의 언덕(산)이 있었다. 하나는 모리야 산이라고 불렀고 (성전이 지어진 곳), 또 다른 하나는 시온 산이라고 불렀다 (다윗의 왕궁이 지어진 곳). 엄격하게 말하면 시온은 언덕(산)이었고 예루살렘은 이 언덕을 둘러싼 도시였다. 시온은 여부스 족이 언덕 꼭대기에 자리잡은 성벽으로 둘러싼 부분을 말하여, 이는 예루살렘의 다윗의 개인적인 처소가 되기도 했다. 이사야서에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동의어로 쓰였으며 (사 2:3; 4:3-4; 31:4-5, 9; 33:20; 40:9; 41:27; 52:1; 64:10), 이는 이스라엘과 야곱이 동의어처럼 쓰인 것과 같다.

- F. David offered the position of "chief captain" over the entire army to anyone who climbed up the water shaft to capture the city (5:8). After examining the city's defenses, David concluded that the best strategy was to go up the water shaft. To attempt to come up by way of a steep valley would have been certain death, but no one was protecting the water supply.

다윗은 물 길는 곳(수로)으로 올라가서 도시를 점령하는 자에게는 전체 군대의 "군대 장관"의 자리를 줄 것을 제안했다 (5:8). 다윗은 이 도시의 방어 상태를 점검한 후에 물 길는 데, 즉 수로를 통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가파른 계곡을 통해 올라가려는 시도는 사망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물 길는 곳은 아무도 방어하고 있지 않았다.

⁸Now David said on that day, "Whoever climbs up by way of the water shaft and defeats the Jebusites (the lame and the blind, who are hated by David's soul), he shall be chief and captain." (2 Sam. 5:8)

⁸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삼하 5:8)

⁸다윗이 그 날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수로로 올라와 다윗의 혼이 미워하는 여부스인들과 절름발이와 소경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경과 절름발이는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한글 KJV, 삼하 5:8)

- G. **Water shaft:** There was a tunnel in Jerusalem that provided access during a siege to the spring Gihon just outside the city wall. Many think this tunnel was used to penetrate the fortification. In 1867, Sir Charles Warren discovered such a tunnel that has currently been proven to have been built 700 years prior to David's taking of the city; it is believed to be this water shaft.

물 길는 데 (수로): 예루살렘은 포위당했을 때 성벽 바깥의 기혼 샘까지 갈 수 있는 터널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터널이 이 요새의 방어를 뚫는 데에 사용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1867년에 찰스 워렌 경은 한 터널을 발견했으며, 이 터널은 현재 다윗이 이 도시를 점령하기 70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윗이 말한 수로는 바로 이곳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 H. **The lame and the blind were hated by David's soul:** David used the Jebusites' mocking statement to speak back to them with a sarcastic tone in answering their taunt that lame and the blind soldiers could easily defeat him. The statement was not a reflection of David's view of the handicapped. Both David and Jesus entered Jerusalem as king to proclaim God's authority over the city, though when Jesus the son of David entered Jerusalem, He healed the lame and blind (Mt. 21:14).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 다윗은 여부스 족이 절름발이와 소경도 쉽게 그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하는 조롱에 대해, 오히려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여부스 족에게 빈정대며 대답했다. 이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관점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모두 이 도시에 대해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기 위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은 절름발이와 소경을 치유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마 21:14).

III. THE LORD GREATLY BLESSED DAVID IN JERUSALEM (2 SAM. 5:9-16)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크게 축복하시다 (삼하 5:9-16)

- A. David dwelt in the stronghold or the fortress of Zion. He renamed the conquered hill of Zion after himself (5:9). The city of David was not initially a reference to Jerusalem, but to Zion.

다윗은 시온의 요새, 산성에 살았다. 그는 이곳 시온 산을 점령한 후 자신의 이름을 따라 도시의 이름을 바꿨다 (5:9). 다윗 성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아닌 시온을 지칭하는 이름이었다.

⁹Then David ***dwelt in the stronghold*** [fortress of Zion], and called it the ***City of David***. And David built all around from the ***Millo*** and inward. ¹⁰So David went on and became great, and the LORD God of hosts was with him. (2 Sam. 5:9-10)

⁹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시온 요새]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¹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삼하 5:9-10)

- B. **Millo:** The word describes “supporting terraces” (NIV) created by landfill—bringing dirt and rock to the hilltop. This provided a larger surface on which buildings could be built (2 Kgs. 12:20, 1 Chr. 32:5). Around the Millo David built buildings used by his government.

밀로: 이 단어는 매립용으로 언덕 위까지 가져오는 흙과 바위로 만들어진 “평평한 지반”를 말한다. 이를 통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더 넓은 면적이 생기게 된다 (왕하 12:20; 대상 32:5). 다윗은 이 밀로를 주변으로 통치에 필요한 건물들을 지었다.

- C. King Hiram honored David's success by building David a house in his new city (5:11-12). Hiram was the king of Tyre, a powerful city-state in northern area of the coastal region. Hiram saw God's hand on David; therefore he wanted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him. Hiram sent a delegation with a group of carpenters and stonemasons, along with cedar logs to build David a palace.

히람 왕은 다윗의 성공을 기리며, 다윗의 새로운 도시에 그를 위해 집을 지어줬다 (5:11-12). 히람은 북쪽의 해안 지역에 있는 강력한 도시 국가인 두로의 왕이었다. 히람은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해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는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 히람 왕은 다윗에게 궁전을 지어주기 위해 사절단뿐만 아니라 백향목, 그리고 목수와 석수를 함께 보냈다.

¹¹Hiram king of Tyre sent messengers to David, and cedar trees, and carpenters and masons. And they built David a house. ¹²So David knew that the LORD had established him as king over Israel, and that He had exalted His kingdom for the sake of His people Israel. (2 Sam. 5:11-12)

¹¹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¹²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삼하 5:11-12)

- D. **David knew the Lord established him as king:** David knew that the Lord put him on the throne. He had acted righteously toward Saul and Ishbosheth and refused to establish himself as king. Thus he could rest without worrying about *keeping* his kingdom. Some work hard to establish their position yet live in anxiety over keeping it because they don't know if God gave it to them in the first place.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다윗은 자신을 왕위에 두신 분인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울과 이스보셋에게 의롭게 대했으며,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를 거절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염려하며 살 필요가 없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위치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불안 가운데 사는데, 이는 그들이 무엇보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²⁷...“A man can receive nothing unless it has been given to him from heaven. (Jn. 3:27)

²⁷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 3:27)

IV. DAVID DEFEATED THE PHILISTINES (2 SAM. 5:17-25)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다 (삼하 5:17-25)

- A. When the Philistines learned that Israel had anointed David as king, they attacked him twice (5:17-25). The Philistines brought down Saul's kingdom and were determined to do the same to David. The Valley of Rephaim was a canyon about one mile southwest of Jerusalem. David renamed the valley, calling it *Baal Perazim*, which literally means “the Lord of the breaking through.”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을 두 번이나 공격했다 (5:17-25). 블레셋은 사울의 왕국을 무너뜨렸으며, 다윗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1 마일(1.6km) 정도 이어진 협곡이다. 다윗은 이 계곡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바꿨으며, 이는 문자적으로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¹⁷... the Philistines heard that they had anointed David king over Israel... ¹⁸The Philistines also went and deployed themselves in the Valley of Rephaim. ¹⁹So David inquired of the LORD, saying, “Shall I go up against the Philistines?”...The LORD said to David, “Go up, for I will doubtless deliver the Philistines into your hand”... ²⁰David defeated them there; and he said, “The LORD has broken through my enemies before me, like a breakthrough of water.” Therefore he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Baal Perazim. (2 Sam. 5:17-20)

¹⁷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 ¹⁸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¹⁹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²⁰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흠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흠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삼하 5:17-20)

- B. The Philistines attacked a second time in the very same place (5:22-25).

블레셋은 동일한 장소를 두 번째로 공격했다 (5:22-25).

²²The Philistines went up once again...in the Valley of Rephaim. ²³Therefore David inquired of the LORD, and He said, "You shall not go up; circle around behind them, and come upon them in front of the mulberry trees. ²⁴And it shall be, when you hear the sound of marching in the tops of the mulberry trees, then you shall advance quickly. For then the LORD will go out before you to strike the camp of the Philistines."²⁵And David did so, as the LORD commanded him; and he drove back the Philistines from Geba [Gibeon] as far as Gezer. (2 Sam. 5:22-25)

²²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²³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²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 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²⁵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삼하 5:22-25)

- C. The Lord gave David a tactic that involved the element of surprise when the Philistines retreated. Israel's army was to circle around behind the Philistines and hide behind the mulberry trees (5:23) and then attack them in front of the mulberry trees when the Lord struck their camp in the front.

주님은 블레셋이 물러갔을 때, 다윗에게 기습 작전이 포함된 전략을 주셨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뒤쪽을 돌아서 뽕나무 수풀에 숨어서 (5:23), 주님이 그들 진영을 앞에서 치실 때 뽕나무 수풀 맞은 편에서 그들을 공격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1. Israel was to delay the attack until they heard the sound of marching in the tops of the trees (5:24). To the Philistines, it probably sounded as if a large army was attacking them so they fled in panic. It was a sign from the Lord that it was time to attack the fleeing Philistines.

이스라엘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의 행진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공격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했다 (5:24). 이는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큰 군대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듯한 소리로 인해 당황해서 달아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또한 달아나는 블레셋을 공격할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시는 주님의 싸인이었다.

2. The Lord had released a supernatural intervention through nature in a previous battle against the Philistines in the days when Samuel was judge (1 Sam. 7:10).

주님은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연계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다 (삼상 7:10).

¹⁰...the Philistines drew near to battle against Israel. But the LORD thundered with a loud thunder upon the Philistines that day, and so confused them that they were overcome before Israel. (1 Sam. 7:10)

¹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삼상 7:10)

3. David and his army pursued the Philistines defeating them over 20-mile stretch of land from Geba [NIV, “Gibeon”] to Gezer.

다윗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을 게바[NIV,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는 20 마일(32km)이 넘는 거리까지 물리치며 따라갔다.

- D. Two battles occurred in the Valley of Rephaim. The same enemies in the same place, yet God’s direction was different each time—first it was, “Go up.” Then it was, “You shall not go up.” The circumstances seemed identical, yet on *each* occasion God was to be sought and then obeyed.

르바임 골짜기에서는 두 번의 전투가 있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적과 싸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각각 달랐다. 첫 번째는 “올라가라”였고, 그 다음은 “올라가지 말라”였다. 상황은 동일해 보였지만, 다윗은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순종해야 했다.

- E. **Leadership lesson:** Ask the Lord for His timing and method in each battle without assuming that He will use the same approach as He did in a previous battle when helping you gain a victory.

리더십 강의: 주님이 당신이 승리하도록 도우실 때 이전의 전투에서 행하신 것과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 번 전쟁마다 주님께 그분의 타이밍과 방법을 구하라.